

# 포스트휴먼 딜레마\*

## -인간향상과 포스트-바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 응 준\*\*

- I. 들어가는 말
- II. 포스트-바디와 인간향상
- III. 포스트휴먼의 신체적-기술적 양상
- IV. 나오는 말: 과학기술과 포스트휴먼 딜레마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몸/육체 그리고 정신/영혼이라는 전통적 인간 이해를 토대로 과학기술시대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몸/육체 또는 정신/영혼의 상호 연관 관계를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소위 포스트휴먼 시대 과학기술지상주의의 한계와 논리적 모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인간과 과학기술의 인터페이스뿐 아니라 이 두 이질적 속성의 합체와 융화를 살펴보고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육체에 대한 의미변화를 유형적으로 구분하여 소위 인간향상기술이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와 동시에 전통적 휴머니즘적 세계관을 붕괴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인간향상기술에 기반을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5732)

\*\* 대전대학교 H-LAC 교수

두고 있는 포스트휴먼이 스스로 자신의 육체(바디)를 잉여적인 것으로 변질시킴과 동시에 과학기술의 대상으로 요구하는 모순적 상황에 있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주제어

인간향상, 육체, 포스트-바디, 테크노-휴먼 존재, 포스트휴먼 정체성

##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육체를 둘러싼 근현대 논의를 포스트휴먼 논의와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한다. 포스트휴먼 논의는 한편으로 인간에게 부과된 자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연적 인간 존재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유형의 등장을 암시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포스트휴먼은 전통적 육체의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로 구성되는 육체를 소유한 인간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과학기술, 특히 인간향상(Human Enhancement)과 그에 따른 포스트-바디(Post-Body)의 등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실증적 사례로 본 연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B. Werber)의 『뇌』(2001)와 샤를로테 케르너(Ch. Kerner)의 『결작인간』(2008)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자는 전자네트워크에 두뇌를 연결하여 뇌 기능을 강화하는 Brain-Enhancement를 통한 포스트-바디 형성을 제시하며, 후자는 의식만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에 육체만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를 연결하여 하나의 인간으로 재구성하는 Brain-Transplant 이후 발생하는 포스트-바디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두 작품을 사례로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 인간향상과 그에 따른 포스트-바디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 II. 포스트-바디와 인간향상

### 1. 육체의 과학기술적 해체와 포스트-바디

인간은 물리적 정신적 존재이며 이 두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 존재를 구성한다는 생각은 인간에 관한 논의의 지배적 관점을 형성하였다. 이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또한 정신과 육체를 지닌 감성적 존

재로 규정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전통적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은 육체를 통해 타인 그리고 세계와 감각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근현대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은 육체를 요구하는 동시에 육체를 통해 존재하는 감각적 실체가 된다.<sup>1)</sup>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는 곧 휴머니즘적 인간의 인격과 동일시되기도 한다.<sup>2)</sup>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적 논의는 20세기 현상학에까지 이어진다. 일례로 폰티(M. Ponty)를 비롯한 현상학자들에게 육체 행동은 체현된 지성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기반이다. 그러므로 폰티는 육체와 세계의 관계를 인식의 관계라기보다는 “세계 내 존재(In-der-Welt-Sein)”하기 위한 관계로 파악한다. 따라서 몸(Leib)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속에서만 존재한다. 반면 육체(Körper)는 세계를 소유하려는 우리들의 도구수단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경험적으로 증명

- 
- 1) Volker Schürmann, *Max Scheller und Helmuth Plessner. Leiblichkeit in der philosophischen Anthropologie*, In: *Leiblichkeit*, Emmanuelle Alloa (hrsg.), Tübingen: UTB, 2012, pp.217~218. 플레스너(H. Plessner)는 ‘육체를 가진 것(Körper-haben)’과 ‘몸적 존재(Leib-sein)’로 구분하면서 이 두 가지의 합일이 인간이라고 규정한다. Körper-haben이란 행위과정에서 육체와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석 대상적, 관찰적 대상으로서의 몸을 의미한다. 반면 Leib-sein은 어느 존재가 삶의 근원 내지는 환경과 맺는 관계적 육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와 연결되는 도구적 관계성(instrumentelle Verhältnisse)을 의미한다. 플레스너는 이 두 관점이 생명체 중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균형적으로 합일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 2) Michela Marzano, *Philosophie des Körpers*, München: Diederichs Verlag, 2013, p.20. 데카르트는 res extensa (연장적 실체: 확장적, 물질적, 물리적인 것)와 res cogitans (정신적 실체: 사유, 자아, 정신)를 구분한다. 그는 정신/영혼(Seele)을 사유/생각(Denken)과 일치시키고 육체/몸(Körper)은 확장/연결(Ausdehnung)과 일치시킨다. 이러한 구도는 영혼/정신의 인간을 구상한 플라톤과 일맥상통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체와 정신의 합일을 주장하는 반면 플라톤은 인간의 정신이 육체에 갇혀있으나 정신이 육체를 조종하는 주체로 판단한다. 이와 달리 스피노자는 육체와 정신의 일원론(Monismus)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능력/특성은 사유(Denken)이며 이 사유능력은 그 대상인 육체를 요구하면서 육체는 사유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과 육체는 상호보완적이며 상호 연관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되는 대상이다.<sup>3)</sup> 그러므로 육체는 감각과 지각의 총합체인 동시에 인간 존재는 육체를 통해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과정에서 인간의 육체는 인격의 육화된 현현(Inkarnation)이라는 특성을 지닌다.<sup>4)</sup> 육체는 인간 자신과 연결되고 인간은 육체를 통해 주체로서 세계와 연결된다.

그러나 근현대 과학기술적 세계관은 인간을 물리적 상태로 귀속시키며 인간의 행동은 결코 정신의 발현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즉, 물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뇌의 기능과 작동을 통해 생성된다. 따라서 신경생물학이 주장하듯 인간의 정신과 행동은 뇌의 통제권에서만 존재한다.<sup>5)</sup> 인간의 정신은 신체기관인 뇌와 동일하다는 경험적 실증적 설명은 인간을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물리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한 것은 육체가 곧 인간 주체성과 연결된다는 논리에 과학기술적 포스트휴먼은 새로운 유형의 육체이해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바뱅(D. Babin)은 과학기술과 육체라는 이질적인 두 속성으로 환원 불가능하며 또한 구분 불가능한 육체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포스트-바디(Post-Body)”라고 부른다.<sup>6)</sup> 즉, 포스트-바디는 과학기술의 체화(embodied)를 전제이자

3) Ibid., p.52. 폰티에게 ‘존재(Existenz)’라는 용어는 사물로서의 존재(Existenz als Ding)과 의식으로서의 존재(Existenz als Bewusstsein)를 의미하며 육체(Körper)는 바로 지금 우리이며 인간성(Menschlichkeit)과 주체성(Subjektivität)의 증거물이다. 따라서 육체를 소유하는 인간은 의식과 존재의 인간이자 동시에 인간성과 주체성을 소유하는 동시에 이를 드러내는 존재이다. 물론 이 과정은 육체라는 수단을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육체는 물질(Materie)이자 개체(Individuum)의 살덩어리 물질(fleischliches Substrat)이며 재현대상(Objekt der Repräsentation)이다.

4) Ibid., p.55.

5) Holm Tetens, *Geist, Gehirn, Maschine*, Stuttgart: Reclam, 1994, p.92.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행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인간의 행동변화는 물리적 상황변화이며 이는 신경 조직적으로 통제되고 제어된다. 둘째, 신체 기관은 감각 기관이자 운동기관인데, 이들은 모두 신경조직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시스템이다. 따라서 인간 행동이란 뇌가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6) 도미니크 바뱅 저, 양영란 역,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궁리, 2007, 45쪽,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합체된 새로운 유형인 인간의 육체를 기존의 휴머니즘적, 근현대적 관점과 구분하기 위해 도미니크 바뱅이 제안한 “포스트-바디”라는 표현

필수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휴머니즘적 육체와 차이를 보인다. 바벵이 제시하는 포스트-바디는 무엇보다 첫째, 유전자가 강화된 육체 유형(유전적 변이), 둘째, 인간과 기계의 융합유형(과학기술적 적응)의 형태를 보인다.<sup>7)</sup> 결국 포스트-바디는 자연 진화 또는 유전자에 좌우되는 인간이 아니라 과학기술적이며 인공적인 인간생존조건과 그런 환경 속의 육체를 의미한다.<sup>8)</sup>

하지만 몸속으로 파고드는 과학기술적 생산물을 생물학적 유기체인 인간이 완벽히 소유하여 포스트-바디로 안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적 생산물은 언제든 나의 육체를 벗어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포스트-바디로 안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예, 인공보철물 장착과 제거의 경우). 또한 네트워크로 정신이 업로딩되는 경우 업로딩된 정신은 육체를 소유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육체는 잉여적인 것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육체는 과학기술을 활용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적용 대상이 되며 과학기술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요인으로 그 의미가 변한다. 따라서 자아구성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육체가 갖는 주체적 지위는 사라지고 육체는 보철기구 등으로 대변되는 향상기술과 공존하게 된다. 이 경우 인간은 육체를 통한 감각과 지각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다시 말해 포스트휴먼적인 새로운 유형인 동시에 과학기술의 도구적

---

을 차용하고자 한다. 육체에 대한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Judith Halberstam의 포스트휴먼 바디 <Posthuman Bodies> (Indiana Univ. Press, 1995)라는 개념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사용가능하다.

7) 앞의 책, 88쪽.

8) 돈 아이디 저, 이희은 역, 『테크놀로지의 몸』, 텍스트, 2013, 239쪽.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돈 아이디(D. Ihde)는 소멸되는 주체의 자리에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테크놀로지와 인간은 첫째, 쌍방향 관계를 의미하며, 둘째, 우리 몸은 테크놀로지에 항상 적응한다는 것이다. 테크놀로지 또한 인간에게 적응한다. 그렇지 못한 과학적 도구수단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아이디의 입장은 명확해진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다. .... 우리는 테크놀로지의 몸이다.”

대상이며 잉여물이 될 수 있는 육체가 바로 포스트-바디이다.<sup>9)</sup> 이 경우 육체의 의미는 향상기술의 유형에 따라 그 의미를 보존(예: 보철, 세포복제, 세포배양 등)하거나 잉여적(예: 네트워크로 업로드된 정신)이 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은 전통적인 육체의 의미를 해체할 가능성이 농후해 지는 것이다.

## 2. 인간향상과 육체의 재구성

육체에 관한 오래된 관념 중 하나는 육체를 죽음과 연결된 소멸성과 유한성의 상징으로 바라보고 비난과 혐오의 대상(Das Abjekte, Verworfenne)으로 규정하는 것이다.<sup>10)</sup> 그러나 소멸성과 유한성을 극복하고 완벽함에 다가가려는 인간의 욕망은 곧 인공적이며 인위적 수단인 도구의 활용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바로 테크놀로지이며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향상(Human Enhancement)”이다.<sup>11)</sup>

9) Michela Marzano, *Philosophie des Körpers*, p.33. 호주의 행위예술가 스텔락(Sterlac)은 인간과 기술의 혼합적 합체를 예술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 자체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obsolet) 것이기에 기계적 장비와의 공생(Symbios)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이 단계를 소위 ‘post-evolution’으로 지칭되는데, 나노테크놀로지와 가상영역이 육체의 인간에게 대안공간으로 제시된다. 프랑스의 행위예술가 오를랑(Orlan)에게 육체는 예술적 대상이자 동시에 변경 및 변화 가능한 대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녀에게 육체란 단지 변화 가능한 기성품(Readymade)일 뿐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신의 육체를 최적화할 권한을 소유한다. 오를랑은 육체의 해체이후 새로운 정체성 형성과 재구성의 도구적 수단으로 육체의 기능을 이해한다.

10) Ibid., p.97.

11) Andreas Woyke, *Human Enhancement und seine Bewertung*, In: *Die Debatte über Human Enhancement*, Christopher Coenen (hrsg.), Bielefeld: Transcript, 2010, p.24. 인간향상에 대한 관점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포스트휴먼 관점: 이 관점은 과학기술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테크노-유토피아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인간향상기술을 인간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인간향상기술이 인간 본성의 소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공적이며 인위적인 과학기술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 주장한다. 2. 자유주의적 관점: 이 관점은 인간향상기술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주장한다. 즉 이 관

“향상(Enhancement)”이라는 용어에는 새로운 인간유형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내포되어 있으며 또한 결핍존재(Mängelwesen)인 인간의 완벽화(Perfektionierung)에 대한 욕망도 내포되어 있다.<sup>12)</sup> 그러므로 향상된 인간은 보다 더 매력적이며, 더 건강하며, 더 지적인 유형의 인간을 의미한다.

일레로 모어(M. More)는 이러한 과정을 인간다움의 포기기가 아니라 새로운 인간다움 생성의 시험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모어는 자연적 상태의 인간 능력을 초월하여 노화와 죽음 같은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향상된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한다.<sup>13)</sup>

결국 소멸의 상징인 육체가 오히려 인간의 존재 의미를 확장하고 보충해 준다는 아이러니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즉 더 이상 육체와 정신의 합일이 아니라 생물학적 유기체인 인간과 인간향상 테크놀로지의 공존과 합일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포스트휴먼시대 인간향상은 인류의 소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간의 육체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욱 강력한 “기계육체(Maschinenkörper)”로 대체하고자 한다.<sup>14)</sup> 이러한 맥락에서 커즈와일(R.

점은 과학기술의 다양한 능력을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인간향상기술이 제공하는 다양한 가능성만큼은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3. 보수주의적 관점: 이 관점은 인간향상기술을 철저히 거부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인간의 근원적인 자연적 본성과 특성을 변화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4. 회의주의적 관점: 이 관점은 인간향상기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며 인간의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당위성의 소멸을 염려한다.

12) Oliver Bender, *Enhancement oder die Verbesserung des Menschen. Die zweite Revolution?*, O. Bender (hrsg.), Innsbruck: Books on Demand, 2012, p.9.

13) Oliver Krüger, *Virtualität und Unsterblichkeit. Die Visionen des Posthumanismus*. Freiburg: Romnach, 2014, p.142, 258. 맥스 모어가 1988년 사용한 엑스트로피(Extropy)는 흔히 열역학 제 2법칙으로 불리는 엔트로피(Entropy)에 대한 긍정적 대립개념이다. 증가하는 엔트로피로 인해 우주는 쇠퇴와 하강단계에 접어드는데 반해 엑스트로피는 삶의 무한 상승운동과 무한 확장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생명무한확장론(Extropianismus)을 주장하는 맥스 모어는 약물, 보철, 이식 등으로 향상된 인간이 죽음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인간이 되는 것을 “새로운 계몽(neue Aufklärung)”이라고 주장한다.

Kurzweil)은 휴머니즘 시대를 생물학적 진화발전단계로 규정하면서 포스트휴먼 단계에서는 생물학적 진화를 초월하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sup>15)</sup>

이러한 과학기술 발전과정의 주체를 인간이라 가정한다면, 인간의 발전 방향은 테크놀로지와 협력 및 공생하는 관계로 이어진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육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다. 육체가 인간향상기술의 도구이자 대상이 된다는 것은 육체의 탈자연화와 탈의미화를 모두 의미하기 때문이다.<sup>16)</sup>

이는 새로운 인간상을 창출하기 위한 육체의 의미변화를 내포한다. 일례로 페레이던 에스판다이어리(F. M. Esfandiary)는 인간이 자연 진화의 우연성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완전한 인간으로 재구성(redesign) 되어야 진정한 인간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비쿼터스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telesphere)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인간은 유전기술을 활용해 협력적 생산(collaborative procreation)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7)</sup>

바로 여기에 포스트휴머니즘적 이상향의 딜레마가 있다. 왜냐하면 후기구조주의적 해체 이후 재구성되는 포스트휴먼 육체는 휴머니즘 시기 때보다 더욱 다원적이며 다변적이어야 하는데,<sup>18)</sup> 과학기술적으로 재구성

14) Ibid., p.169, 263. 프랭크 티플러(F. Tipler)는 인류가 과학기술적으로 향상되어 슈퍼휴먼(superhuman)이나 초월존재(superbeing)의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물리적 육체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전자 손상, 면역요류 등 인간의 육체는 오류의 집합체이기에 언제든지 수정 및 수리 가능한 기계육체로 지속적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15) 레이 커즈와일 저, 김명남 역, 『특이점이 온다』, 김영사 2010, 44쪽.

16) Klaus Nagel, *Die Verbesserung des Menschen*, In: Enhancement, p.311. 나겔(K. Nagel)은 인간향상에 진화론의 핵심요소인 유전, 변이, 선택이 없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적 향상은 자연 진화와 완전히 분리된 것이며 무관한 것임을 강조한다.

17) Feredioum M. Esfandiary, *Are you transhuman?*, New York: Warner Books, 1989, p.135. "We humans do not want to play god or to be god. We aspire to much more."

되는 포스트-바디는 포스트휴먼 그 자체를 주체이자 대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포스트-바디 자체를 잉여적 모습으로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향상기술로 재구성되는 포스트-바디는 과학기술의 타자적 대상이자 종속적 속성을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적으로 재구성된 인공물인 포스트-바디는 “비자연적인 것(das Unnatürliche)”의 영역에 속하는 동시에 “인간이 아닌 것(das Inhumane)”이자 과학기술적 “타자(das Andere)”의 모습으로 나타난다.<sup>19)</sup>

그러므로 향상기술을 통해 체화되는 기술적 도구수단 그 자체는 인간의 육체를 구성하는 보조적 의미를 넘어서게 되며 ‘나’라는 인간의식과 정체성은 체화된 향상기술 수단에 따라 다양한 변화와 분화를 겪는다.<sup>20)</sup> 그리고 향상된 인간이 겪는 변화와 분화는 새로운 인간과 육체에 대한 의미변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모델에 따르면 생물학적 육체와 결부된 전통적 의미의 인간 주체성은 결국 소멸되며 새로운 유형의 포스트-인간중심적(postanthropologisch)인 관점이 등장하게 된다.<sup>21)</sup> 그리고 과학기술은 인간의 형이상학적 존재 의미를 감각적이며 유물론적인 세계로 안내한다.<sup>22)</sup> 이 경우 인간은 형이

18) 한스 모라벡 저, 박우석 역, 『마음의 아이들』, 김영사 2011, 135쪽.

19) Rosi Braidotti, *Posthumanismus. Leben jenseits des Menschen*, Frankfurt/M.: Campus, 2014, p.111.

20) 리처드 레스텍 저, 홍승효 역,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뇌』, 휴머니스트 2015, 14쪽.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는 인간의 정신적인 삶의 모든 측면이 신체경험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탈신체화(disembodiment)’는 신체 없이 작동하는 마음을 의미하기 보다는 신체와 마음의 관계가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1) Rosi Braidotti, *Posthumanismus*, p.54, 162. 휴머니즘과 반휴머니즘의 대립관계를 지양하고 과학기술적으로 중재되는 시대의 새로운 인간 특성을 브라이도티는 “판-휴머니티 Panhumanität”라고 부른다. 또한 그녀는 포스트휴먼 주체성을 자율적이 아니라 타율적이며 다양한 형상들의 상대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트리시아 클라우그(P. Cloug)은 개별적 주체의 주체성이라는 의미의 육체를 소유하지 않은 주체성이라고 설명한다.

22) Ralph Tille, *Visuelle Virtualität - Hybride Erweiterung der Wahrnehmung*, In: *Maschinen, die unsere Brüder werden*, Christoph Hubig (hrsg.), München, Wilhelm

상학적 정신성(뇌, 머리)과 감각적 유물론적 대상(몸, 육체)사이의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향상기술을 통한 육체의 재구성 가능성이 과연 휴머니즘 이후 인류가 꿈꾸는 유토피아적 모습인가라는 비판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질문은 육체와 정신이라는 근원적인 이원론 문제로 다시 되돌아간다.

### Ⅲ. 포스트휴먼의 신체적-기술적 양상

#### 1. 뇌 기능 향상과 포스트휴먼: Brain-Enhancement, 베르나르 베르베르 『뇌』

“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독한 별을 받은 사람이다. 예전에는 나 같은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빌어먹을 진보라는 것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이렇게 살아 있어야 한다. 이걸 정말 끔찍한 일이다.”<sup>23)</sup>

2001년에 출간된 베르나르 베르베르(B. Werber)의 『뇌』는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주인공 장 루이 마르탱(Jean Louis Martin)이 자신의 두뇌를 전자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특정인물의 의식과 행동을 조종하는 사건을

---

Fink, 2008, p.21. 모라벡(H. Moravec)이 지적하듯 향상현실(Enhanced Reality)에서는 “육체의 대체(Ersetzung des Körpers)”와 “감각의 소멸”(Die Sinne hat keine Zukunft)이 발생하게 되고 육체와 감각의 자리를 인간과 기계의 인터랙션이 대신한다. 따라서 인류는 휴머니즘이후의 새로운 주체를 요구하는데, 모라벡은 탈생물학적이거나(post-biological) 초자연적인(super-natural) 초자연성(Supernatural)을 포스트휴먼의 새로운 주체라고 생각한다.

23) Bernard Werber, 『L'Ultime Secret』, Editions Albin Michael S. A. Paris 2001. 베르나르 베르베르 저, 이세욱 역, 『뇌』, 열린책들 2002, 72, 92쪽. 원본의 제목은 “최후의 비밀”이지만 국내번역본 제목인 “뇌”를 본 논문에서도 사용한다. 또한 지면상의 이유로 원문인용은 생략한다.

다른 소설이다.

교통사고 이후 마비된 육체로 인해 마르탱은 소위 “감금증후군” 상태에 빠지게 된다.<sup>24)</sup> 다른 등장인물들과는 달리 마비된 그의 육체는 ‘작동하지’ 않는다. 육체를 기능하는 유기체로 바라보는 물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마르탱의 육체는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고장난 살덩어리’일 뿐이다. 신체적 기능을 상실한 마르탱의 육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한 ‘zoe’와 ‘bios’라는 개념을 적용하기에도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zoe’가 단순히 살아있는, 즉 생물적 삶을 의미한다면 ‘bios’는 삶 자체, 즉 개인이나 사회가 지닌 독특한 형태와 방식의 삶을 자칭하기 때문이다.<sup>25)</sup> 이 관점에 따르면 주인공 마르탱의 육체는 이 두 범주 중 어느 하나에 고정되지 않으며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해도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다.

그러나 분명 마르탱은 존재한다. 그의 존재는 고장난 육체가 아니라 향상기술이 적용되어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자아로 증명된다. 마르탱의 육체는 움직일 수 없는 고장난 육체이지만 사이보그화되어 전자회로에서 활동하는 마르탱은 물질적 생물학적 한계와 제약에서 벗어난 소위 사이버 육체(Cyberkörper)로의 전환을 상징한다.<sup>26)</sup> 웹시스템을 통해 세계와 연결된 마르탱은 더 이상 인격의 육화된 현현으로서의 육체가 아니라 인간과 과학기술이 상호적응하고 융합된 포스트-바디 유형이다.

24) 감금증후군(locked-in-syndrom)은 의식은 있으나 전신마비로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다. 혼수상태와는 달리 대뇌와 소뇌는 정상 작동한다. 소위 “완전감금증후군 (total locked in syndrom)”에서는 의사소통 가능하던 ‘눈’마저 마비된 상태를 말한다. 알렉상드르 뒤마 (Alexandre Dumas)는 소설 <몬테크리스토백작>에 등장하는 누아르테 드빌포르(Noirtier de Villefort)를 눈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으로 의사소통하는 ‘살아있는 눈을 가진 시체’로 묘사한다.

25) Michela Marzano, *Philosophie des Körpers*, p.71.

26) Ibid., p.27. “사이버 육체는 물질적 육체를 대체할 수 있는 육체의 대체물(Ersatzkörper)을 요구하는데, 일례로 아바타처럼 실제 인간과 가상인간의 도플갱어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대체물이면 충분하다.”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무수한 웹 카메라가 그의(=마르탱) 눈이라면, 웹의 정보 수집 도구 프로그램, 즉 로봇들과 연결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들은 모두 그의 손이었다.”<sup>27)</sup>

육체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르탱은 소위 “신경-향상기술(Neuro-Enhancement)”에 의존하여 자신의 뇌 기능을 극대화 시킨다. “뇌-도핑(Hirndoping)”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뇌기능이 향상된 “슈퍼지능(Super-Intelligenz)”의 출현으로 이어진다.<sup>28)</sup> 왜냐하면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정신적 과정은 단지 중추신경계, 특히 뉴런 체계의 작동이며 인간의 뇌는 전기 자극으로 작동하는 수백만 개의 뉴런연결체일 뿐이기 때문에 뉴런체계 활성화는 곧 성능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육체와 정신이라는 이원론적 구분이 적용될 필요조차 없다. 신경계와 뉴런체계는 작동하면서 의식을 생성하고 있음이 중요한 사실이다. 눈과 손 같은 신체기관은 컴퓨터 같은 도구로 대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체화된 기술(embodied Technology)로 구성된 마르탱의 포스트-바디는 기능함과 작동함을 통해 생성되는 포스트-정신성을 상징한다. 즉, 마르탱의 육체에 적용된 인간향상기술은 마르탱의 자기 정체성으로 증명된다. 마르탱은 기계와 동질화되어 존재하는 포스트-바디를 의미한다.

“그의 육신과 이 육신이 소멸하지 않게 해주는 기계 장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그는 기계가 되었음에도 사고 작용을 계속하는 최초의 인간이었다.”<sup>29)</sup>

인간의 뇌를 기계와 연결하는 것을 “Brain Machine Interface(BMI)”라고 하

27) Bernard Werber, 『뇌』, 285쪽.

28) Thorsten Galert, *Das optimierte Gehirn. Geist und Gehirn*, Spektrum der Wissenschaft, Heidelberg 2009, p.3.

29) Bernard Werber, 『뇌』, 170쪽.

며, 컴퓨터와 연결하는 경우를 “Brain Computer Interface(BCI)”라고 부른다. 이는 인간의 뇌와 전자장치를 연결하여 전자신호를 바이오전자(bioelektronisch) 시그널로 교환함을 의미한다. 이 시그널은 뇌에서 기계로 그리고 그 역의 방향으로도 흐른다. 따라서 뇌신호를 전자자극으로 전환하여 뇌작동을 일종의 정보로 전달함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연결과 소통이 가능해진다. 이때 모니터 상의 커서(Cursor)는 인간의 두뇌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가능해진다.<sup>30)</sup> 컴퓨터에 연결되어 외부세계와 접촉하는 마르탱은 “BMI/BCI”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작동하고 기능하는 “BMI/BCI”는 마르탱의 의식구조 속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내용이 풍부해짐으로써 마르탱의 전자(電子) 무의식이 되었다. 핀처 (Samuel Fincher)박사는 이 프로그램에 아테나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디세우스의 조연자 역할을 한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sup>31)</sup>

“BMI/BCI”를 활용 및 응용하여 뇌의 특정부분을 전기로 자극하고 뇌의 특정 영역을 활성화하면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특정 방향과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Deep Brain Stimulation(DBS)”라 한다.<sup>32)</sup> 마르탱에 의해 원격으로 뇌의 특정부분을 자극당하는 사무엘 핀처가 “DBS”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두개골을 완전히 열지 않고 단지 두 개의 미세한 구멍만을 뚫어서, 2밀리미터 길이의 유리 원추 두 개를 스캐너로 알아낸 자리에 하나씩 심었다. .... 뉴런의 수상 돌기들이 전극을 발견하고 그것과 결속을 이루자, 뉴런들은 이내 전극의 가느다란 구리선을 자기들의 연장 부분으로 받아들였다. 유리 원추들 주위로 그야말로 뉴런들의 덩불이 만들

30) Oliver Müller, *Zwischen Mensch und Maschine*. Berlin: Suhrkamp, 2010, p.18.

31) Bernard Werber, 『뇌』, 288쪽.

32) Oliver Müller, *Zwischen Mensch und Maschine*, p.20.

어진 형국이었다. 유기체와 전자 물질 사이의 놀라운 융합이었다.”<sup>33)</sup>

이 장면은 뇌와 정신이 물질화되고 인간의 의식 자체가 물질정보화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핀처에게 적용된 “DBS”와 마르탱에게 적용된 “BMI/BCI”는 인간 의식 기관인 뇌에서 발생하는 의식과 생각을 물질정보화 하는 것이다. 물질정보화된 의식은 소멸되거나 분실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고 보존된다. 따라서 “BMI/BCI”와 “DBS”로 향상된 포스트-바디에는 생물학적 연약함이나 결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지만, 그 생각 중에서 표현되는 것은 너무나 적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정보가 실종된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 중에서 단지 그들이 표현하는 것만을 알 뿐이다.”<sup>34)</sup>

하지만 이 작품에서 육체는 분명 소멸되고 사라져 버렸다. 남은 것은 정신 중심주의, 정확히 말해 포스트-바디의 뇌 기능주의적 정신성이다. 바로 이점이 모라벡(H. Moravec)이 주장한 “정신이송(Mind Transfer)”에 상응하는 부분이다. 그는 『마음의 아이들』에서 인간의 의식 자체를 육체와 분리하여 컴퓨터 전자 신호 체계 속으로 이송하는 이른바 정신이송을 통해 유한한 생명의 인간이 무한성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sup>35)</sup> 육체를 벗어난 정신은 물리적 기계와 결합 내지는 공생관계(Symbios)를 통해 비로소 향상될 가능성을 보게 된다.

“이제 나는(=마르탱) 안다. 정신이 강한 자야말로 진정한 강자이고, 다가올 제국은 정신의 제국이라는 것을. .... 미래에 ‘훌륭한’ 사람은 먼저 대뇌 피질이 복잡하고 뉴런과 뉴런이 더욱 잘 접속되는 사람일거

33) Bernard Werber, 『뇌』, 279쪽.

34) 앞의 책, 『뇌』, 56쪽.

35) 한스 모라벡, 『마음의 아이들』, 87쪽.

요. .... 한마디로 말해서 포유류의 뇌를 초월하여 정신의 자유로움에 도달한 사람일 거요.”<sup>36)</sup>

“진정한 강자”는 복잡한 뉴런체계를 소유한 사람이다. 이러한 유형의 인간은 워익(K. Warwick)의 주장처럼 인간의 뇌와 컴퓨터(인터넷)의 신경학적 연결을 통해 생성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과학기술적 도움으로 “육체(body hack), 뇌(brain hack) 그리고 감각(sensory hack)의 최적화와 능력향상”으로 이어진다.<sup>37)</sup>

“말하자면, 더 빠르고 더 깊이 있게 사고하는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미래의 인간을 위한 ‘새로운 도덕’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의 힘을 빌리자는 거였다.”<sup>38)</sup>

“미래의 인간”에게는 최적화(Optimierung)와 완벽화(Perfektionierung)가 궁극적인 목적이며 그 토대가 바로 기술적 이성(Technische Rationalität)이다.<sup>39)</sup> 따라서 생물학적 육체는 소멸되지만 포스트-바디는 향상기술의 도움으로 오히려 확장되고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도구적, 실천적 이성은 유효하지 않다. 마르탱의 육체는 그 자체로 기술적용대상이며 자기기술화(Selbsttechnisierung)의 집결체이다. 포스트-바디는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가 최소화되고 과학기술 영향력이 최대화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포스트-바디는 인간의 의지적 주체성이 아니라 과학기술결정론(Technodeterminismus)이 지배하는 곳이다.<sup>40)</sup>

36) Bernard Werber, 『뇌』, 581, 582쪽.

37) Oliver Krüger, *Virtualität und Unsterblichkeit*. p.133. 워익과 유사하게 커즈와일(R. Kurzweil)은 “정신 영혼 기계의 시대 (Age of spiritual Machine)를 주장하며, 네그로폰테(N. Negroponte)는 정신 업로드 자체에는 반대하면서도 인간 영혼과 정신의 디지털화를 통해 시간성과 공간성을 초월하는 포스트휴먼적 디지털 시대를 주장한다.

38) Bernard Werber, 『뇌』, 286쪽.

39) 돈 아이디, 『테크놀로지의 몸』, 47쪽.

인간의 의식과 이성 은 과학기술적으로 향상된 뇌기능의 결과이며 포스트-바디는 뉴런신경체계와 인간 의식의 기능적 결합을 의미한다.

뉴런신경체계가 인간의 의식을 구성한다면, 일정한 작동원리 또는 패턴을 가지게 된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도구를 활용해 향상된 뇌는 컴퓨터와 유사한 기능과 작용 그리고 패턴을 가져야 하고 결국 뇌는 컴퓨터와 동일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뉴런 수의 변화와 뉴런 간의 연결 변화는 전자신호의 입력과 출력(Input-Output) 원리로 작동한다. 즉,

“그것은(=뇌) 한낱 살덩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성능을 지닌 유기적 컴퓨터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도 시계가 있고, 중앙 칩이며 마더보드며 하드디스크가 있다. 한마디로 살로 이루어진 컴퓨터인 셈이다.”<sup>41)</sup>

반면 세포로 구성된 인간의 뇌는 뇌세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무엇보다 뇌세포의 시냅스(Synapse)도 심리적 과정에 따라 변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테텐스(H. Tetens)는 두뇌가 결코 자동기계장치 또는 컴퓨터와 비교될 수 없는 최상의 “역동적 시스템(dynamisches System)”이라고 주장한다.<sup>42)</sup>

소위 ‘신경-향상기술’이 불러오는 인간의 자기이해와 자기변형 가능성은 향상되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자아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낯선 존재로 다가 올 수 있으며 나아가 과학기술적 발전과 그에 따른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적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향상기술은 인간의 생존과 삶의 의미를 전기 자극에 의한 뇌의 작동 그리고 그에 따른 만족감으로 규정한다.<sup>43)</sup> 그리고 이는 모든 인간

40) Oliver Müller, *Zwischen Mensch und Maschine*, p.18.

41) Bernard Werber, 『뇌』, 206쪽.

42) Holm Tetens, *Geist, Gehirn, Maschine*, pp.102~103.

43) Oliver Müller, *Zwischen Mensch und Maschine*, p.25. 포스트휴먼 논의는 인간의 의식과 인식이 인간 고유성과 행동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헤일즈(K. Hayles)의 견해에 따르면 포스트휴먼적 사

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뇌의 중심에는 알고리즘적 연산 프로그램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일정한 규칙과 패턴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전기 자극, 즉 “최후의 비밀”로 명명된 뇌자극은 인간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 된다.

“우리는 MFB(=Median Forebrain Bundle, 정중정뇌관속)를 자극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소. 우리가 말하고 걷고 숨 쉬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전쟁을 벌이고 선행이나 악행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도 다 최후의 비밀이라는 그 부위에 전기 자극을 받기 위한 거요. 이걸 우리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우리 내부의 가장 중대한 프로그래밍이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욕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sup>44)</sup>

결국 마르탱과 핀처의 생물학적 육체는 오로지 향상기술과 접목된 상태에서만 비로소 삶의 의미와 의욕을 얻을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이며 과학기술에 종속된 모습으로 그려진다. 뇌가 전자장치와 연결된 초자연적 초월적 인간은 자기 자신을 과학기술과 분리하여 자연적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포스트-바디의 인간이다.

그러나 포스트휴머니즘이 극복하려는 것은 인간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적 대상으로서의 육체(Körper)이다. 즉, 세계와 연결되는 존재론적 삶의 의미로서의 몸(Leib)의 의미를 극복하려는 것은 아니다.<sup>45)</sup> 따라서 “육체성(Körperlichkeit)”인가 또는 “육체의 몸성(Leiblichkeit)”인가 라는 질문은 포

---

고는 신체라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대체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적 존재인 인간은 비신체적 존재인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테제 등과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44) Bernard Werber, 『뇌』, 479쪽.

45) 슈테판 헤어브레히터 저, 김연순, 김웅준 역, 『포스트휴머니즘』,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67쪽.

스트휴먼논의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질문이지만 분명한 것은 전통적 육체는 잉여화되었다는 것이다.

## 2. 뒤바뀐 몸과 머리의 포스트휴먼: Brain-Transplant, 샤를로테 케르너 『결작인간』

*“이제 그는 사례, 실험이 아니었고 피조물이 아니었다. 여기서 그는 스스로를 새롭게 창조했다. 완성된 결작이 프로메테우스 21이라는 훌륭한 이름에 걸맞는다는 점이 입증됐다.”<sup>46)</sup>*

2008년에 출간된 샤를로테 케르너(Ch. Kerner)의 『결작인간』은 한편으로는 의식은 있지만 육체가 마비된 사람과 다른 한편으로 의식은 없지만 육체는 정상인 사람의 머리와 육체를 조합하여 하나의 인간으로 재구성한 후 발생하는 자아 변형과 자아 규정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보자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육체와 머리를 결합한 ‘키메라적인 존재’는 분명 괴물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재조합된 존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새로운 생명체로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육체를 소유하고 있다.

*“그 새로운 인간은 키메라입니까?” ..... “자연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레나(Lena Kraft)는 신중히 대답했다. .... 비록 오늘날에는 신체 일부나 조직, 세포가 혼합되었을 경우 식물키메라나 인간키메라, 동물키메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키메라 개념을 ‘다양한 유전정보를 가진 생물’로 규정합니다.”<sup>47)</sup>*

46) Charlotte Kerner, 『Kopflös』, Piper, München 2008, 245쪽. 샤를로테 케르너 저, 조경수 역, 『결작인간』, 브리즈 2008. 원본의 제목은 “머리가 없는”이지만 국내 번역본 제목인 “결작인간”을 본 논문에서도 사용한다. 또한 지면상의 이유로 원문인용은 생략한다.

47) 앞의 책, 156, 162쪽.

머리와 육체를 재조합하는 소위 ‘프랑켄슈타인 작업’<sup>48)</sup>으로 생성된 육체는 일종의 포스트-바디이다. 이 유형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머리로 상징되는 정신성인가 또는 육체로 상징되는 경험/감각성인가라는 전통적 휴머니즘적 논의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sup>49)</sup> 향상기술이 적용된 인간의 육체는 단지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이 기능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보들의 “저장매체(Datenträger)”일 뿐이다.<sup>50)</sup> 그러므로 육체는 임의적으로 교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교환 및 대체 가능한 정체성 형성의 사례로 제시되는 것이 소위 “머리이식”이다.

“세계 최초의 전뇌 이식, 진짜 WBT(Whole Brain Transplantation).  
머리 이식은 바로 뇌를 포함해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는 것이다.”<sup>51)</sup>

“머리이식(WBT)”으로 재구성된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과학기술의 대상으로 변형함으로써 자신을 물질화하고 사물화하는 동시에 최적화된 과학기술적 향상상태에 도달한다. 다시 말해 “WBT”는 생물학적 인간의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도구적 가능성으로 제시되며, 이 경우 과학기술적 향상은 존엄의 인간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과

48) “사람 머리 통째 이식 ‘프랑켄슈타인 수술’ 가능할까?”, <서울신문>, 2016년 8월 7일. “소위 ‘프랑켄슈타인 수술’이라 불리는 이 수술은 1970년 로버트 화이트가 원숭이의 머리를 교체이식한 후 원숭이가 약 90일간 생존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7년 12월에는 이태리 의사 세르지오 카나베르 박사의 지도하에 러시아의 컴퓨터 과학자 스피리노프의 머리 교체이식이 집행될 예정이다. 환자는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건강한 신체를 빌려 단 한번이라도 스스로 일어나 걷고 싶다고 수술의 목적을 밝혔다.”

49) 슈테판 헤어브레히터, 『포스트휴머니즘』, 31쪽. 이러한 맥락에서 헤어브레히터(S. Herbrechter)는 ‘돌연변이적’이며 ‘괴물적 기형성’을 포스트휴먼 정체성이라 설명한다. “이 돌연변이를 포스트휴먼 주체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포스트휴먼적인 모습을 갖춘 휴머니즘적 정체성의 새로운 형식이라는 것이다. .... 따라서 포스트휴먼은 괴물과도 같은 기형성이라는 의미대로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것이다.”

50) Oliver Krüger, *Virtualität und Unsterblichkeit*, p.185.

51) Charlotte Kerner, 『결작인간』, 65쪽.

학기술로 생물학적 소멸의 한계를 넘어섬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경험적 집합체로서 포스트-바디의 생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스트-바디는 인격과 존엄이 갖든 장소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적용되는 물질적이며 경험적인 대상이 된다. 이 관점에 따르면 “WBT”는 여타의 장기이식과 차이가 없다.

*“이 수술이 특정한 환자의 목숨을 구하고 그에게 생존할 수 있는 장기들과 쓸 수 있는 손을 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도 WBT는 심장이식과 다르지 않습니다.”<sup>52)</sup>*

심장이식을 비롯한 장기이식은 인간의 연약함과 소멸성, 즉 질병과 죽음과 같은 유한성을 보완 및 극복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죽음도 “WBT”를 통해 극복된다. “WBT”를 통해 향상된 인간의 포스트-바디에는 육체의 소멸이 아니라 단지 기증자의 ‘인격적 죽음’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바디는 생물학적 죽음과는 무관함을 상징한다.

*“기증자가 뇌사했다 하더라도 수술로 인해, 그러니까 신체이식을 통해 결국에는 그가 전체적으로 죽는 것, 즉 시체가 되는 것이 저지됩니다. 기증자의 몸은 수혜자의 머리에 의해 다시 생존 가능하게 되고 그 몸이 이제 달려 있는 게로 폰 후텐(Gero von Hutten)이란 개인에게 부속됩니다. .... 요제프 메치히(Josef Metzger)의 인격만이, 뇌사 개념에 따르면 인격만이 뇌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만이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되었습니다. 몸 전체가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뇌사란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sup>53)</sup>*

52) 앞의 책, 157쪽.

53) 앞의 책, 114, 115쪽.

위 두 인물의 사례에서는 육체와는 무관하게 ‘인격’이 죽음의 대상이다. 육체와 신체기관, 즉 ‘기증자의 몸’과 ‘수혜자의 머리’는 “WBT”라는 과학기술의 대상일 뿐이다. 두 인물에게 적용된 향상기술 덕분에 두 인물은 완전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만 이는 죽음에 대한 그리고 재조합되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이해로 이어진다.

*“이런 죽음의 정의는 인간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켰고 그 시각을 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뇌 중심주의가 탄생했습니다. .... 정체성 수립과 본질 형성에 있어 육체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졌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뇌도 육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sup>54)</sup>*

위 사례에서 인간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뇌” 그리고 “뇌 중심주의”이다. 왜냐하면 정체성 형성의 기준은 작동하는 육체, 특히 뇌이다. 왜냐하면 뇌 역시 육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 움직임과 그 결과물이 “느낌과 감정, 자의식”이다.<sup>55)</sup> 그러므로 뇌 중심주의는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육체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한다. 이 경우 죽음과 삶과 같은 대립개념의 경계는 과학기술의 개입으로 허물어진다.

*“오래 전부터 기술의 산물이 인체에 이식되고 있고, 인체가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선별되며, 생명공학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뇌사, 처음에는 선택된 생식세포, 바이오팩트 (=Biofact, 인공물과 생물사이의 잡종 혹은 자연과 기술의 중간개념)는 진보하고 있습니다.”<sup>56)</sup>*

54) 앞의 책, 27쪽

55) 앞의 책, 238쪽. “모든 개인은 자신의 육체에 의해서만 구체적이 되고, 육체는 살아가면서 변합니다. 느낌과 감정, 자의식이 신체 감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진부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몸 상태가 확고하고 그것에 익숙해야만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56) 앞의 책, 164쪽.

자연적 육체와 “WBT”로 형성된 포스트-바디에는 기증자의 육체와 수혜자의 육체가 공존한다. 육체가 정체성 형성의 기준이라면 문제는 누구의 육체가 정체성 형성의 기준인가라는 점이다. 또한 “WBT”는 육체를 전제로 하지만 육체를 기반으로 한 뇌 중심주의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 두 정체성의 공존과 그로 인한 새로운 정체성 생성 가능성을 열어줄 뿐이다.<sup>57)</sup> 따라서 “WBT”는 육체와 머리 사이의 체현된 경험과 체현과정에서 소외 및 배제된 이식수용자의 탈체현된 육체의 의미를 보존하고 있으며 이는 곧 두 영역간의 불일치로 인한 자기이해 불가능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게로와 요제프의 과거 정체성은 여전히 병존했다. 환자 GH/JM(=Gero von Hutten/Josef Metzsig)이 머리와 몸을 한층 강하게 자신의 체험과 연관시켰는데도 그랬다. 아마도 저울 훈련의 결과로, 그가 제3자의 관점에서 사물을, 또한 게로와 요제프를 관찰하고 느끼고 서술하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레나는 이 제3의 서술자가 새로운 자아의 전초일 것이라고 추측했다.”<sup>58)</sup>

이식을 통한 ‘제3의 자아’ 등장 가능성을 냉시(J. Nancy)는 타인의 장기를 이식한 몸이 여전히 ‘나’의 몸인가라는 질문과 연결한다. 이식을 통해 나의 자아는 타인의 현존을 나의 내부 속에 수용할 것을 강요받는다고 냉시는 설명한다. 따라서 ‘나’와 ‘그’는 서로 뒤섞인다.<sup>59)</sup>

57) 돈 아이디, 『테크놀로지의 몸』, 43쪽. 돈 아이디(D. Idhe)는 ‘여기-몸 here-body’과 ‘이미지-몸 image-body’를 구분한다. 전자가 경험과 체험을 통해 체현된 몸의 관점을 획득한다면 후자는 탈체현된 관점으로 일종의 가상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물론 아이디는 ‘여기-몸’의 작용을 ‘몸으로서의 나 myself-as-body’로 이해한다.

58) Charlotte Kerner, 『결작인간』, 167쪽.

59) Michela Marzano, *Philosophie des Körpers*, p.61. 얼굴이식 또한 마찬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체의 증표이자 타인이 그를 인식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얼굴이식은 타인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 속으로 밀려들어와 나의 정체성과 그의 정체성이 뒤섞이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재구성 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절단된 사지를 컴퓨터로 제어되는 인공사지가 대신할 경우 ..... 인공 사지는 자아상의 일부가 되고 말 그대로 합병되어, 즉 ‘나의 일부’로서 한 몸이 됩니다.”<sup>60)</sup>

이제 육체는 존재론적 균열의 장소가 되며 나의 자아는 그의 자아와 함께 형성되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떠밀리게 된다. 따라서 새롭게 형성된 자아 속에서 나의 자아와 그의 자아는 육체 또는 신체기관 이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체성으로 재구성된다.

“GH/JM으로 산 18개월이 머리와 몸의 13년이라는 나이차를 거의 완전히 없애 놓았다. 그는 더 이상 두 부분으로 된 사람, 키메라, 그릴로스 가 아니었고 괴물은 더더욱 아니었다. 게로의 머리와 요제프의 몸은 완전한 무언가를 형성했다. 그들의 신인간을.”<sup>61)</sup>

새로운 인간의 등장은 자아의 연속성으로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육체교체는 자아의 연속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체 가능한 육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서/마음과 같은 추상적 요소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그 자리는 최적화된 기술에 적응하는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채워진다. 왜냐하면 인간 이성(Humanistische Rationalität)이 아니라 과학기술 이성(Technische Rationalität)이 새로운 이성적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이성은 포스트-바디를 소유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등장함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GH/JM 건에서 자료들이 경이롭게 증명하듯이 사고 패턴을 포함하여 몸이 바뀌면, 오직 뇌에 의해서만 정의되었던 과거의 인격이 사라지고 새로운 제3의 인격이 탄생할 수 있다. .... 요르게 바르네트(Jorge Warnet)는 공식적으로 미술 컨설턴트로 등재되었고 그것은 새

60) Charlotte Kerner, 『결작인간』, 239쪽.

61) 앞의 책, 244쪽.

로운 인생에 꽤 도움을 주었다.”<sup>62)</sup>

과학기술 이성은 인간의 사유능력을 대체할 수 있으나 새로운 인간유형과 정체성은 결국 기능주의적 뇌 중심주의로 귀결된다. 그러나 뇌 중심주의는 육체 없이는 형상화되고 구체화 될 수 없다는 모순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육체의 인간(요제프 메치히) 또는 머리의 인간(게로 폰 후텐)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요르게 바르네트)의 등장을 통해 과학기술적 인간향상의 모순성과 포스트-바디의 등장을 경고한다.

#### Ⅳ. 나오는 말: 과학기술과 포스트휴먼 딜레마

프로타고라스(Protagoras)는 인간을 “모든 것의 기준(Mass aller Dinge)”이라 지칭하며 인간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의 토대를 구축했다.<sup>63)</sup> 하지만 뮐러(O. Müller)의 견해처럼 이제는 단지 인류학적 낭만주의(anthropologische Romantik)에 대한 향수일 뿐이다.<sup>64)</sup>

포스트휴먼을 규정짓는 중요 요인인 인간향상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작업능력 향상과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적 세계관과 지식의 발전이라는 두 요인 그리고 이 두 요인의 합일(synthese)적 세계관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유전적 제비뽑기와 같은 불확실성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명확함과 증명가능성이 지배하는 “가능성의 왕국(Reich des Möglichen)”으로 인류를 안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연성 제거(Kontingenzbewältigung)”는 인간향상의 중요한 기초를 이루며 포스트휴머니즘의 토대가 된다.<sup>65)</sup>

분명 탈자연적인(『뇌』의 경우) 혹은 자연 질서와는 다른 인위적, 인공적

62) 앞의 책, 259, 262쪽.

63) Rosi Braidotti, *Posthumanismus*, p.19.

64) Oliver Müller, *Zwischen Mensch und Maschine*, p.10.

65) Ibid., p.99.

정체성 형성(『걸작인간』의 경우)은 그 자체로 영지주의적(gnostisch)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은 육체를 둘러싼 과학 기술과 인간의 상관관계를 철저히 공리적으로 이해하려한다.<sup>6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휴먼 논의에서 인간의 육체는 철저히 대상화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화(Kontextualisierung)와 존재적 의미는 상실되고 만다.<sup>67)</sup>

이러한 구도에서 향상기술은 인간의 육체를 잉여적인 것으로 만들지만(『뇌』의 마르탱의 경우) 때로는 향상기술이 적용되고 작동하는 기능주의적 육체가 필수조건으로 전제되는(『걸작인간』의 요르게 바르네트의 경우)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포스트휴먼시대의 과학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인간향상기술이 적용된 육체는 이중적이며 이율배반적인 의미의 구성체가 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과학기술 결정론으로 귀결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극복하고 진화와 발전의 주체가 되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인간향상기술이 적용된 포스트-바디는 과학기술의 주체이자 종속적 대상이라는 이중적 모순 상황에 놓이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포스트휴머니즘이 추구하는 포스트-바디는 단지 포스트휴먼 딜레마의 상징일 뿐이다.

결국 향상된 포스트-바디는 과학기술 시대의 인간 존재 의미 찾기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으로 우리를 다시 안내한다. 포스트-바디는 그 자체로 과학기술적 인간향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스트휴먼 딜레마의 양상이다.

66) Oliver Krüger, *Virtualität und Unsterblichkeit*, p.272.

67) 슈테판 헤어브레히터, 『포스트휴머니즘』, 138쪽. “기술은 신체를 기묘하게 만든다. 기술은 신체를 파편화하고 해부해서 신체의 욕망을 변형시킨다. .... 신체는 질병의 위협을 받기도하고 질병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질병을 극복하기도 한다. .... 신체는 성장하고 재생산하지만 죽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가 갖는 이러한 고유한 특성을 포스트휴먼은 훼손하거나 외면하려 한다고 헤어브레히터는 지적한다.

• 참고문헌

자료

Charlotte Kerner, *Kopflös*, Piper, München 2008.

샤를로테 케르너 저, 조경수 역, 『걸작인간』, 브리즈 2008.

Bernard Weber, *L'Ultime Secret*, Editions Albin Michel S. A. Paris 2001.

베르나르 베르베르 저, 이세욱 역, 『뇌』, 열린책들 2012.

연구논저

도미니크 바벡 저, 양영란 역,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궁리, 2007.

슈테판 헤어브레히터 저, 김연순, 김웅준 역, 『포스트휴머니즘』,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한스 모라벡 저, 박우석 역, 『마음의 아이들』, 김영사, 2011.

홍덕선, 박규현 저, 『몸과 문화』.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Alloa, Emmanuelle (hrsg.), *Leiblichkeit*. Tübingen: UTB, 2012.

Bender, Oliver, *Enhancement oder die Verbesserung des Menschen. Die zweite Revolution?*, Innsbruck: Books on Demand, 2012.

Braidotti, Rosi, *Posthumanismus. Leben jenseits des Menschen*. Frankfurt/M.: Campus, 2014.

Coenen, Christopher (hrsg.), *Die Debatte über Human Enhancement*, Bielefeld: Transcript, 2010.

Esfandiary, F. M., *Are you transhuman?*, New York: Warner Books, 1989.

Galert, Thorsten, *Das optimierte Gehirn*, Heidelberg: Spektrum, 2009.

Krüger, Oliver, *Virtualität und Unsterblichkeit. Die Visionen des Posthumanismus*, Freiburg: Romnach, 2014.

Marzano, Michela, *Philosophie des Körpers*, München: Diederichs, 2013.

Müller, Oliver, *Zwischen Mensch und Maschine*, Berlin: Suhrkamp, 2010.

Nagel, Klaus, *Die Verbesserung des Menschen*, In: Enhancement.

Tetens, Holm, *Geist, Gehirn, Maschine*, Stuttgart: Reclam, 1994.

Tille, Ralph, *Visuelle Virtualität- Hybride Erweiterung der Wahrnehmung*, In:  
*Maschinen, die unsere Brüder werden*, Christoph Hubig (hrsg.),  
München: Wilhelm Fink, 2008.

## Posthuman Dilemma

### – A critical Analysis of the Post-Human Enhancement and the Post-Body –

Kim, Eung-Jun\*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modern discussion about body and the posthuman. The discussion about posthuman suggests, on the one hand, the possibility to overcome the natural limit of the human with body and mind. On the other hand, it suggests the appearance of a new type of human. From this point of view, posthuman pursues a disembodied human; a man with body composed of new meanings but not traditional meanings. In this new thinking, science and technology (especially human enhancement and the following appearance of pot-body) are very important.

In this study the present writer takes the novel *L'Ultime Secret* (B. Werber, 2001) and *Kopflos* (Ch. Kerner, 2008) as examples. The former suggests the formation of the Post-Body through brain-enhancement that strengthens the function of the brain by connecting the brain to electronic network, while the latter describes the meaning of brain-transplant that restructures a new man by connecting a head from a man who has only living brain to a body from a man with only living body. These are two types of transformable post-bodies. This study considers and critically surveys the meaning of human enhancement and the following post-body.

---

\* Professor, Daejeon University

Key words: Human enhancement, body, post-body,  
techno-human-being, posthuman identity

필자 E-Mail: waldruhe@dju.kr

투고일 2016년 09월 28일 / 심사완료일 2016년 10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6년 10월 31일